



말 바꾸고, 사고원인 조사는 비협조

학교 급식소 감염기 손가락 절단사고 손배 소송 도교육청 “오작동 아니다” 발뺌... 사고 원인 전가 피해자측 “교육청, 근로자 안전사고 규명 소극적”

제주도교육청의 야누스(Janus)적 행태에 판사까지 혀를 내둘렀다. 제주 학교 급식소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더불어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조병대 부장판사는 20일 제주 학교 급식소에서 음식물감량기를 다루다 손가락 4개를 잃은 A씨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2일 제

주시내 모 학교 급식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한 뒤 건조하는 ‘음식물감량기’를 다루다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4개를 잃었다. A씨가 감량기 정지 버튼을 누른 뒤 배출구에 낀 음식물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기계가 작동돼 오른손이 팔려들어가 버린 것이다.

이날 피고(이석문 교육감) 측은 감량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에서 이석문 교육감이 “감량기 작동에 대해 설명을 못받는 등 현장까지 안전지침이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기계

잘못”이라는 발언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변론이다.

나아가 피고 측은 “감량기 청소할 때는 손을 집어 넣는 것 자체를 금기시 하고 있다. 반드시 청소도구를 이용해야 한다”며 되레 사고의 원인을 A씨 탓으로 돌렸다.

A씨 변호인은 “청소 솔로 감량기에 끼인 음식물을 긁어 내야 하는데 음식물이 굳어 솔이 아닌 손으로 때어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A씨는 분명히 정지 버튼을 누르고 청소를 실시했음에도 감량기가 작동했다. 즉 A씨는 기계가 갑자기 작동한다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도교육청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A씨 변호인은 “감량기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서 (도교육청은) 원인 분석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정지 버튼을 누른 상태에도 감량기가 작동한다는 것을 영상이라도 찍어서 제출해달라고 2차례나 요구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피고 측이 “동영상 냈는데...”라고 답하자 A씨 변호인은 “그 영상은 사고와 크게 관련 없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피고 측은 “다른 자료는 없다. 지금 감량기도 시스템이 개선돼 재연도 못한다”고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하자가 있지 않을 거 같다. 사고 당시 감량기로 재연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며 “아무튼 오늘로 모든 변론을 종결하겠다. 선고는 다음달 2월 17일 오후 1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지방분권 추진 의지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제주도민행동본부 회견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는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 후보의 지방분권 공약을 촉구했다. >> 사진

대통령의 등장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민행동본부는 ▷차기 정부 지방분권 개헌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 ▷지역 주도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역간 협력 촉진하는 시도 및 시군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제주 지방정부의 지위·조직·행정 및 재정 등 고도의 자치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도영기자

“돈 돌려받고 싶으면 옷 벗은 사진 보내”

피해자 성착취·협박 중고물품사기단 3명 중형

7년 동안 온라인 중고물품 장터에서 수십억원대 사기를 친 조직의 수뇌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5년에 7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1)씨에게는 징역 14년에 추징금 4억원, C(36)씨에게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가 총책으로 있는 중고 사기단은 지난 2014년 7월 31일부터 2020년 1월 18일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장터에서 가전제품과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5600여명, 피해금액은 56억여원에 달한다. B씨는 관리책임자, C씨는 판매책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돈을 돌려달라는 일부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사진을 보내주면 돌려주겠다”며 성착취 행각을 벌인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전화번호 유포와 배달음식 주문 테러, 협박, 조롱 등의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은범기자

입후보자 선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도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의 선물 제공 행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을 방지한 금품 제공 등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선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받은 가액의 50배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또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과거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명에게 김 세트를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를 제공한 사례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를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신고전화 1390번 또는 064-723-1390. 이상민기자



20일 JDC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도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서 의료서비스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의료서비스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9000㎡ 규모로 병·의원과 의료 관련 제주분원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상국기자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준공

지상 3층·연면적 9000㎡ 규모... 공공의료시설 입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에 조성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 핵심 시설인 의료서비스센터가 문을 열고 입주 기관 맞이에 나섰다.

JDC는 20일 제주헬스케어타운

에서 유관기관과 사업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서비스센터 준공식을 열었다.

총 사업비 296억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연면적 약 9000㎡ 규모로 완공된 의료서비스센터에는 건강

검진센터, 의원실, 연구실, 컨벤션 및 편의시설 등이 마련됐다.

센터 1층과 2층에는 비영리 의료재단법인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센터가 입주해 국가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JDC는 차병원·바이오그룹 난임센터도 의료서비스센터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다혜기자

이별통보 연인 살인미수 40대 징역 4년

이별 통보를 하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7월 연인인 B씨가 운영하는 도내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투자금 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자신에게 이별 통보와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송은범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용량 : 20kg

달팽이추출물 핵심
성분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해를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악소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하하농법으로 대박나는 농사름!!

하하농법

하하농법이란

이달의 농사 메모

희토류의 H와 아미노산의 A의 융합으로
21세기 최첨단 농법을 말한다

하하농법

☑ 만감류(한라봉 · 레드향 · 천혜향)

- 수확이 끝나면 수세회복을 위해 3일 동안 관수해 준다.(추울때는 하지말것)
- 관수가 끝나 5일후에 형태적 화이분화를 위해 해피한 그린 + 글루칼을 5~7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유기질 비료 및 복합 비료는 2월 20일 이후에 시비할 것

☑ 키 위

- 해피한 그린 + 글루칼 + 보르도액(5kg)을 20일 간격으로 엽면 시비할 것

☑ 마늘 · 양파

- 수세가 약하거나 늦게 파종한 농가에서는 잘커진액 + 희토류 + 농약혼용 살포해 줄것
- 세균성 바이러스가 의심되면 바이패스를 혼용 살포해 줄것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